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
 서울특별시		배포일시 2020. 7. 15.(수) 총 4매(본문 4)		
 영등포구	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	담 당 자	· 과장 김승범, 사무관 강한우, 주무관 조남희 · ☎ (044) 201-4515, 4541	
	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	담 당 자	· 과장 명노준, 팀장 윤옥광, 주무관 김성배 · ☎ (02) 2133-7066, 7070	
	영등포구 도시계획과	담 당 자	· 과장 김창호, 팀장 김재진 · ☎ (02)2670-4206, 3524	
보 도 일 시		2020년 7월 1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5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...사업 본격화

### - 공공주택 등 1.2천호 공급, 민관공 협력체제로 주민 재정착 지원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서울시(시장 권한대행 서정협), 영등포구(구청장 채현일)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(7.17일 고시) 한다고 밝혔다.

< 위치도 >	< 지구 현황 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위치)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</li> <li>▶ (면적) 약 1만㎡</li> <li>▶ (용도지역) 일반상업지역</li> <li>▶ (공급호수) 공공주택 등 1.2천호</li> </ul>

-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6.6㎡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, 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, 냉·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.
  -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나,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하였고, 임대료 상승 및 새로운 쪽방주민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.
  - 또한, 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사업('15년)도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.

- 이에 국토교통부·서울시·영등포구·LH·SH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.20일 발표하였다.

## 1.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발구상

-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·LH·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,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㎡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,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, 분양주택 600호 등 총 1천 2백호를 공급한다.

< 토지이용구상(안) >



\* 지구계획 수립 등으로 토지이용구상은 조정 가능

-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,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, 무료급식·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또한,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, 도서관,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.

< 주민편의시설 >



## 2. '선(先)이주 선(善)순환'의 쪽방주민 이주대책

-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先이주단지(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)를 조성하여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고,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.



## 3. 민·관·공 전담조직(TF) 구성 및 운영

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, 서울시, 영등포구, LH, SH, 민간 돌봄 시설\*이 참여하는 민·관·공 전담조직(TF)을 운영 중이다.

\* 광야교회, 요셉의원, 토마스의 집, 쪽방상담소,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, 응달샘드롭인센터

- 민·관·공 전담조직(TF)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 의견수렴\* 등을 거쳐 쪽방주민 임시이주·재정착,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\* '한국도시연구소'에서 쪽방 주민에 대한 1:1 인터뷰 등을 통해 이주대책 마련 예정

- 또한, 쪽방주민들의 자활·취업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건설공사 등에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.

## 4 향후계획

- 올해 하반기에 창의적인 건축디자인, 효율적 단지 배치 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며, 그 결과를 바탕으로 '21년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'21년 말 착공 예정이다.

-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보상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며, 지자체·사업 시행자·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통하여 토지주에게는 정당 보상하고,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<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(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) >



-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,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.
-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(‘20년),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(‘21년), 신안산선 개통(‘24년)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  <p>공공누리 공경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택지 기획과 강한우 사무관(☎044-201-45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